

목포사랑상품권 완판 임박

골목상권 소비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노획 편의성과 투명성 도모 위해 카드형 도입 예정



지역 자금 역외유출 방지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난 9월 100억 원 규모로 발행된 목포사랑상품권이 판매 시작 3개월 만에 완판 수준에 이르렀다. 목포시에 따르면 목포사랑상품권이 첫 출시 이후 한 달 만인 9월

말에 이미 85억원이 판매되고, 10월 말에 97억을 돌파한데 이어 현재까지 99억 이상이 판매되어 사실상 완판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는 목포사랑상품권 구매시 6~10% 할인으로 가게 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다양한 업종의 가맹점이 다수 확보되어 사용처가 편리해짐에 따라 상품권 구매 선호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지난 해 행정안전부 연구용역을 통해 지역상품권 사용지역 소상공인 소득이 크게 늘어 상품권의 효과와 입증된 만큼 목포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추적으로 기여할 목포사랑상품권 활용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0년부터는 예산한도 내 제한액수만큼 발행되는 상품권 혜택을 시민에게 골고루 확산하기 위해 1인당 월 구매한도를 7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추고

상품권 이용의 편의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카드형 목포사랑상품권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가맹점 환전율을 월 1천만 원까지로 제한하고 월 매출액 증빙자료 제출 시에만 상향조정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변경해서 무분별한 대량 환전을 제한하는 한편, 환전 모니터링 강화, 가맹점 및 판매대행점 주변 현장 암행 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상품권 부정유통 방지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완도군 해외시장개척단, 베트남서 200만 불 수출계약

4박 5일 일정으로 개척단 파견해 베트남 호치민 식품박람회 등 참여

완도군은 지난 12일부터 16일, 4박 5일의 일정으로 베트남 호치민에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완도산 수산물의 동남아 수출 판로개척에 나섰다.

베트남 시장개척에 참가한 완도군의 업체는 (주)완도사랑S&F(전북만두), 다시마전복수산물영양조합법인(활 전복, 전복 가공품 등), (유)하나물산, (유)세계로 수산, 금복식품, 흥일식품(해조류 가공품) 총 6곳이다.

완도군 해외시장개척단은 먼저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베트남 호치민 사이공 컨벤션에서 열린 베트남 호치민 식품박람회에 참여했다.

2015년부터 개최되고 있는 호치민 식품박람회는 베트남 산업통상부가 주최하고 무역진흥청이 주관

하는 대형 박람회로 23개국 약 450개의 글로벌 업체가 참여하며, 방문객 수만 1만 5천 명이 넘는다.

박람회에는 완도 관내 5개 기업이 참여하였으며, 특히 완도 전복을 활용한 전복만두는 이들 만에 완판되며 완도산 수산물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14일에는 완도군의 우수한 수출상품을 확인한 베트남 현지 바이어를 초청하여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200만 불의 수출계약과 업무협약 4건을 체결하였으며 베트남 수산 전문 바이어 및 유통업체를 확보할 수 있었다.

아울러 호치민 한인타운 SC 비보시티에서 개최된 완도군 수산물 프로모션에는 다시마전복수산물영

조합법인과 흥일식품이 전복 가공품 및 해조류 가공품을 판매하여 3일간 약 3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완도군 동남아 시장개척단은 현지 우수 수산가공업체인 흥탄공장 방문과 대형 유통매장인 롯데마트와 스카이다켓, 케이마켓 등에서 시장 조사를 하고, 수협 호치민센터와 aT 호치민 지사 방문 등을 진행했다.

특히 수협 호치민센터와 aT지사를 방문하여 베트남 수출시장 현황 및 수출 절차를 파악하고, 현지에서 완도산 수산물을 활용한 요리 교실 사업 등을 제안했다.

완도군 관계자는 "올해 미국에 이어 동남아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시장개척 활동을 통해 완도 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완도=김광수 기자

현대삼호중공업 마라톤동호회, 영암 소외이웃에 나눔

지역주민 향한 따뜻한 나눔 실천하는 마라토너들 복지사각지대 대상자·소외가정에 힘과 용기 전달

영암군 현대삼호중공업 마라톤동호회는 지난 14일 독거노인과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등 복지사각지대 가정을 방문하여 소외된 마음을 위로하는 정서지원과 생필품을 전달하는 나눔을 통해주위를 훈훈하게 하였다.

수년째 지역봉사를 이어오고 있는 동호회원들은 쌀, 세제, 라면, 화장지 등 각종 생필품을 직접 배

달하고 따뜻한 말벗 봉사로 힘겹게 생활하는 대상 가정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었다.

김영갑 마라톤동호회 회장은 "지역사랑 일환으로 회원들이 한 마음으로 준비하였다"며, "우리 동호회 이외에도 다양한 모임과 동호회에서 지역 내 소외된 이웃의 따뜻한 겨울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줄로 안다. 앞으로도 꾸준히 달

러가는 마라토너처럼 지역 나눔문화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광호 삼호읍장은 "직장과 지역사회를 위해 열심히 뛰어오신 동호회 회원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복지공동체의 큰 역할을 해주고 계신 현대삼호중공업 직원분들 덕에 우리 지역 나눔 문화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간지원과 연계한 총출발 복지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 복지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영암=조대호 기자

2020년~2024년 강진군 살림 연평균 4.6% 증가 전망

강진군이 지난 15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2020년~2024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이날 강진군 살림의 연평균 증가율은 4.6%로 전망했다.

심의위원회는 이진섭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군 의원과 민간위원 등 8명이 참석하여 2020년~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내다보고 반영하는 다년도 예산 계획으로, 다음 회계연도부터 5년의 계획을 지방의회

와 행정안전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2020년 군 최종 예산이 5,000억원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으며, 군의 5년간 세입을 보면 이전재원 비중이 92.9%로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이러한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지방세 징수율을 제고하고, 레포츠·문화·스포츠·관광 마케팅을 통해 세외수입을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분야별 투자재원 구성비를 보

면 농림해양수산업이 29.6%로 가장 높으며, 사회복지가 16.5%, 문화 및 관광 11.3%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농림해양수산업은 스마트팜 조성,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운영, 초록민음식거레센터, 미래유망과수 재배 확대 등으로 편성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지급 등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확대를 위한 법적·무경비 부담 증가와 사회적 약자 배려, 보육 및 양육수당 지원 확대에 따른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구성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정남진시니어합창단, 장흥군민공연예술경연 금상 수상



장흥군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정남진시니어합창단'이 장흥문화원에서 주최한 제4회 장흥군민공연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해 금

상을 수상했다.

지난 14일 장흥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이번 장흥군민공연예술경연대회에는 장흥군에 거주하는 순

수 아마추어 공연예술단체 및 개인 12개팀이 참가했다.

참가팀들은 무용, 연극, 노래, 기악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열띤 경연을 펼쳤다.

정남진시니어합창단은 '정신에 살리라', '홀로아리랑'을 불렀으며, 태극기 퍼포먼스를 펼쳐 관객심사단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으며 수상을 영예를 안았다.

정남진시니어합창단은 2017년 장흥군 노인복지관이 개관하며 처음 결성됐다.

여성농업인 함평군연합회, 독거노인에 김장김치 등 전달



함평군은 한국여성농업인 함평군연합회(이하 한여농)가 독거노

인 등 지역 취약계층에 김치 20박스(100kg)와 햅쌀 20포(200kg)를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5일 한여농 회원 20여 명은 한여농 전남도연합회 등 도내 관계 기관과 김장 담그기 행사를 열고 이날 담근 김장김치와 회원들이 직접 농사지은 햅쌀을 지역 독거노인세대에 전달했다. 이항희 한국여성농업인 함평군연합회장

은 "어려운 주위 이웃들에 조금이라도 보탬이라도 됐으면 한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과 함께 호흡하는 따뜻한 한여농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여성농업인 함평군연합회는 지역축제에서 거둔 판매부스 운영 수익금을 매년 함평군 인재양성기금에 기탁하고 있다.

함평=김광훈 기자

보이는 것이 전부 아닙니다!

옳은 정보를 구분하는 현명한 시민,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시작합니다.

